

2021년과 코로나 팬데믹 斷想



제41대(2021년) 회장 김건수

먼저 미생물학 관련 국내 제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쌓아온 우리 학회의 반백년 역사를 축하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회를 통하여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성장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회를 통하여 많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기에 우리 학회의 50주년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학회 비약이 시절부터 학회의 훌륭한 대선배님들과 동료들을 통하여 많은 배움을 얻으며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였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도 학회의 회장이라는 과분하고 영광스런 직책까지 맡다 보니 학회와 학회 구성원들을 위해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2021년은 새해 벽두부터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둡고 어지러운 각종 뉴스로 시작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학회의 살림을 맡고 있는 간사진들은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임기를 시작하였고, 당장 2월의 동계학술대회의 개최 장소와 개최형식으로 심각한 고민을 나누어아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일 년 내내 정기학술대회와 기타 모든 행사일정과 진행 방법에 대한 아슬아슬한 결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분히 즉흥적인 정부 시책을 주시해야 했고 수시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했으며 새로이 도입되는 여러 기술적인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며 현장에 적용해야 했습니다. 학회의 발전을 위한 변화의 도모보다는 '무탈'이 최선의 시급한 목표가 되어버렸다고나 할까... 성공적인 학술대회의 개최와 전문인들로서 코로나 상황의 사회적 해결의 기여에 대한 고민보다는 '미생물학'의 국내 대표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경우에 겪을지도 모르는 대외적인 곤란함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처를 하며 무기력함을 느꼈다는 것이 솔직한 맘이었습니다. 모든 학술대회와 학회 행사 사진의 마스크를 착용한 우스꽝스런 모습들은 차라리 후대에 기억될 역사적 기록이라고 치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때 애썼던 많은 분들의 모습이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모두 주지하다시피 전염병은 인류 역사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모든 구간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15세기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흑사병, 미 신대륙의 홍역과 황열병, 19세기의 콜레라 펜데믹, 1910년대 세계적인 독감 펜데믹, 지금도 많은 인간을 희생시키는 말라리아, 또한 AIDS, 이볼라, 지카 등 20세기 말의 전대미문의 신종 유행병들, 그리고 한낱 감기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었던 SARS, MERS 등등.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질병만 해도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미생물학은 기본적으로 19세기 배태시기부터 지금까지 질병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세기 넘는 시간 동안 수 많은 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은 미생물의 공격에 인류는 여전히 형편없이 취약하기만 합니다. 우리 학회가 국내 미생물학 관련 국내 최고 지성 집단으로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결집된 전문적 판단을 세우고 사회적 지침을 제시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깊이 남으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기후변화와 물리적 소통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지어 더욱 빈번히, 전대미문의 감염성 질병의 출현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때마다 야기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혼란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우리 학회가 조금이라도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적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폭넓은 사회적 역할과 우리 전문지식의 사회 환원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회의 제반 업무와 행사들을 모두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던 김희남 간사장님, 이진원 총무간사님, 이상준 재무간사님, 그리고 그 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헌신적으로 애써주셨던 모든 간사진들과 학회 스텝들께 모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많은 후원 단체와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맘을 전합니다.

끝으로 학회 모든 후배님들도 우리 학회를 통하여 운택하고 유익한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라며, 우리 학회가 학문적 발전과 나아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며 (저는 그 자리에 없겠지만) 성대한 백 주년을 맞게 되기를 소원합니다.